

1 LPGA 진출 2 세계랭킹 1위 3 올림픽 금



올 시즌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전관왕에 오른 최혜진이 14일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가지며 바쁜 한 해를 돌아봤다. 우수한 윌차림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 최혜진. 고훈준 기자

“아마추어 시절 태극마크 꿈은 이뤄 남은 꿈들 이루려면 지금부터 중요 도쿄올림픽 출전? 다음 대회 기억 연말까지 학업 소화 후 해외 전문

어릴 적 세계무대를 지켜보며 꿈꿔온 목표들이 이제 눈앞으로 다가왔다.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진출과 여자골프 세계랭킹 1위 등극 그리고 올림픽 금메달 획득까지... '약관의 여왕' 최혜진(20·롯데)의 힘찬 스윙이 잠시라도 멈출 수 없는 이유다.

올 시즌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전관왕으로 등극한 최혜진이 14일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숨 가뻐한 한 해를 돌아봤다. 정형화된 유니폼 대신 수수한 대학생 옷차림으로 취재진을 맞은 최혜진은 어릴 적부터 간직한 꿈 꼬마리부터 풀어놓았다.

매달 획득이었다. 이 가운데 아마추어 시절 태극마크를 달면서 첫 번째 꿈은 이뤘다. 이제 3개가 남았는데 이 모두 지금부터의 노력이 중요하다.”

최혜진은 현재 국내 골프계에서 가장 '핫'한 선수다. 약관의 나이로 국내 무대는 이미 평정했고, 언제 LPGA 투어로 떠나느냐가 최대 관심사로 통한다. 올 시즌 KLPGA 투어 집중을 위해 LPGA 투어 Q시리즈 출전을 포기한 최혜진은 “내년 시즌 KLPGA 투어와 LPGA 투어 일정이 확정되면, 대회가 겹치지 않는 때를 위주로 미국을 다녀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영어 공부도 틈틈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혜진의 아버지 최길호 씨와 어머니 공나영 씨가 함께했다. 부모님은 딸을 필드 안에서 보살피는 든든한 동반자다. 어머니 공 씨는 “(최)혜진이 임신했을 때 특이한 태몽 하나를 봤다. 눈이 정말 예쁜 돼지 한마리가 나를 무는 꿈이었다. 그때 ‘아, 내가 딸을 임신했구나’라고 느꼈다”고 웃으며 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질 유망주로 성장한 최혜진은 2017년 아마추어 신분으로 KLPGA 투어 2승과 LPGA 투어 US여자오픈 준우승을 차지했고, 지난해 KLPGA 투어 대상과 신인왕 그리고 올해 대상과 상금왕, 평균타수상, 다승왕을 휩쓸며 자타공인 1인자가 됐다.

이처럼 필드 위에서는 양보 없는 싸움을 벌이는 승부사지만, 필드 밖에서는 여느 대학생과 다르지 않는 일상을 보내고 있다. 어머니 공 씨는 “딸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떡볶이다. 대회가 끝날 때마다 집 앞 떡볶이집을 찾아 스트레스를 풀다. 최근까지 고진영 프로와 이웃 사촌이었는데 같은 집에서 자주 마주쳐 둘이 친분을 쌓았다”고 귀띔했다.

이제 3가지 목표를 남겨둔 최혜진은 차근차근 꿈을 향해 달려갈 생각이다. 당장 2020도쿄올림픽이 몇 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올림픽 출전은 이번이 아니더라도 다음 대회가 있지 않은가”라며 짐짓 여유를 보였다.

올 시즌 2019년을 보낸 최혜진은 연말까지 학업을 소화한 뒤 해외 전지훈련을 떠날 계획이다.

초등학교 때 처음 클럽을 잡아 학창시

고훈준 기자 shutout@donga.com

라디오 방송 도중 욕설 '골프 황제' 우즈 구설수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44·미국)가 호주의 한 라디오 방송 도중 욕설을 해 구설수를 샀다. 미국 USA투데이와 골프위크 등 주요 외신들은 14일(한국시간) “우즈가 12일 출현한 호주의 라디오 프로그램 ‘트리플M의 핫 브레이크아웃’에서 ‘F’자로 시작하는 영어 욕설을 사용했다. 은퇴 후 계획을 이야기하는 도중 ‘자연과 함께 하는 삶이 최고’라고 강조하면서 해당 단어를 내뱉었다”고 보도했다.

우즈 12일 출현한 호주의 라디오 프로그램 ‘트리플M의 핫 브레이크아웃’에서 ‘F’자로 시작하는 영어 욕설을 사용했다. 은퇴 후 계획을 이야기하는 도중 ‘자연과 함께 하는 삶이 최고’라고 강조하면서 해당 단어를 내뱉었다”고 보도했다.

우즈는 해당 프로그램에서 진행자와 은퇴 이후의 인생을 놓고 인터뷰를 나눴다. 평소 좋아하는 낚시와 사냥, 다이빙을 즐기고 싶다면서 욕설로 자신의 뜻을 강조했다. 해당 부분은 방송에서 ‘뻤’ 소리로 대체됐다. 예상치 못한 우즈의 돌출 발언이 나오자 진행자는 몇쪽은 웃음으로 이 상황을 넘겼지만, 우즈는 개의치 않고 “나는 어릴 적부터 자연과 자라서 자연 속에서 즐기는 골프와 잘 맞는다”고 자신의 생각을 덧붙였다.

해프닝이 알려지자 여러 외신들은 뒤늦게 이 소식을 전했다. 그러나 상당수 매체들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미국 골프채널은 “우즈는 원래 조금은 저속하면서도 재치 있는 입담으로 유명한 선수”라고 이번 상황을 설명했다. 이처럼 설화 하나라도 주목받는 우즈는 연말에도 바쁜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다음달 바하마에서 열리는 타이거 우즈 재단의 주관 대회 히어로 월드 챌린지를 통해 다시 필드를 밟은 뒤 호주에서 열리는 프레지던트컵에서 미국팀을 선수 겸 단장으로 이끈다.

고훈준 기자 hmyang0307@donga.com

조민성 대표 “라오스 스포츠 한류 이끈다”

(올리브리글로벌)

해외서 대한민국 브랜드 높이는 코리아맨

“라오스는 인도차이나반도 육로의 중심 지역입니다. 앞으로 스포츠 교류가 매우 중요해질 겁니다.”

5일 2019 코리아스포츠진흥대상 수상을 위해 라오스에서 귀국한 조민성 올리브리글로벌 대표의 얼굴은 밝았고 목소리에는 힘이 넘쳐흘렀다.

문화와 스포츠를 통한 세계와의 소통을 지향하는 올리브리글로벌은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스포츠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의 문화와 스포츠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가치있는 생활방식과 문화를 제안하는 기업이다.



조민성 올리브리글로벌 대표이사

로 삼아 시장과 소비자를 즉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실전 솔루션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가치있는 생활방식과 문화를 제안하는 기업이다.

올리브리글로벌이 거둔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성과로는 방탄소년단 The Win

gs Tour Australia(2017), EXO Word to ur Philippines(2018), 워너원 World Tour Australia(2018), 지드래곤 World Tour Australia(2017), INFINITE&MYNAME 일본콘서트(2016), 티아라 일본콘서트(2015) 등이 있다.

스포츠에이전시로서도 활발한 사업을 펼쳐 태국 U-12 국제축구대회(2016·2017), 캐나다 U-17 국제축구대회(2016), 연예인 축구팀 초청 친선경기(오스트레일리아·2017) 등 굵직한 대회들이 올리브리글로벌의 손을 거쳐 갔다. 조민성 대표는 이러한 기업 활동으로 국내의 스포츠산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코리아스포츠진흥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조민성 대표와 올리브리글로벌은 2018년부터 라오스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라오스 경찰청 축구단

을 창단하고 후원하는 등 올해들어 각종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는 중이다.

10월부터는 요트클럽, 골프장 등이 있는 덴사반 남슴리조트의 운영을 15년간 맡게 됐다. 조 대표는 “축구장 4면(메인구장 2면, 보조구장 2면)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라오스는 축구 열기가 뜨거운 곳이다. 요트, 골프에 이어 축구장까지 갖춰 남슴리조트에 스포츠센터가 완성하는 것이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라오스 남슴리조트를 스포츠대회, 전지훈련지의 국제적 명소로 만들 계획이다. 조 대표는 “축구, 골프, 배드민턴을 통해 스포츠외교를 펼치고 스포츠지도 등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한편 라오스에서 한류 문화를 확대하는 데에 힘을 쏟겠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sports21

스포츠투어와 함께하는 스포츠기록실

경기 결과

남자프로농구 (13일)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점 득점 실점 연속

프로배구 (13일)

도드람 2019-2020 V리그 여자부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점 득점 실점 연속

도드람 2019-2020 V리그 남자부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점 득점 실점 연속

NHL <14일>

동부 콘퍼런스 순위 애들랜틱 승 패 OT P 순위 메트로폴리탄 승 패 OT P

서부 콘퍼런스 순위 센트럴 승 패 OT P 순위 퍼시픽 승 패 OT P

NBA <14일>

동부 콘퍼런스 순위 대서양지구 승 패 순위 중부지구 승 패 순위 남동지구 승 패 순위

경기결과

보스턴 140 - 133 워싱턴 미네소타 129 - 114 샌안토니오

아마추어 경기결과 <14일>

농구 ●2020 도쿄올림픽 여자농구 아시아-오세아니아 예선(뉴질랜드 오를랜드)

경기 예고

주말 남자프로농구

●2019-2020 현대모비스 KBL 15일

주말 프로배구

●도드람 2019-2020 V리그 <여자부> 16일

주말 프로배구

●도드람 2019-2020 V리그 <남자부> 15일

아마추어 경기예고 <15일>

축구 ●2019 대학축구 U리그 왕중왕전(김천종합, 경북 보길대)

오늘의 토토 <15일>

●배구토미 매치 54회차 대항경기 및 게임일정 경기 경기일시 홈팀 vs 원정팀 경기장소